

식품수출정보

도미니카共和國의 農加工業 市場

農加工業現況

최근 도미니카의 農業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세계적인 침체와 美國의 輸入쿼타 축소로 인해 전통적인 사탕 및 코피의 생산이 감소되고 파인애플, Citrus 등의 상업성 經濟作物의 재배 및 이의 加工業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에는 外國人持分率이 49%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합작투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農產品의 對美輸出 現況

도미니카의 對美 총수출액중 농산품의 수출 비중은 86년의 경우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종 수출품목의 하나인 사탕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품목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농산품의 86년도 對美 총수출액은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3억 8,500만弗에 이르고 있다. 특히 肉類의 경우 85년 대비 47%가 증가한 2,566만弗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新規有望 投資분야

도미니카는 각종 농산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토양이 비옥하며 美國으로의 海上 및 航空輸送이 편리하고 농업에 알맞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또한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작물재배에 유리하다.

이와 같은 유리한 여건으로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外國人 投資가 증대되고 있다.

- 파인애플, Citrus, 멜론, Passion fruit (시계초), 딸기 등의 열대과일류
- 토마토, 오이, 가지 등의 채소류
- Macadamia, Cashews 등의 견과류
- 양어, 향료 및 植物油
- 기타 열대식물 加工 분야

進出 사례

○ Dole Food Co.(美國 LA 소재 Castle & Cooke Inc.의 子會社)는 46km²의 사탕수수밭을 구입하여 국내최대의 파인애플 농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Dole社는 5년 이내에 과일 및 농축주스를 美國의 東部海岸지대로 연간 10만 t씩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81년에 설립된 Domex SA는 이스라엘에서 과일 및 채소류를 재배한 경험을 토대로 Azua지역에서 8km²의 경작지를 확보하고 멜론, 토마토, 파인애플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 雇傭人員은 3,500명에 이르고 있는데 과거 3년간의 對美 수출량은 연평균 100만상자로 집계되고 있다.

○ JACC(農業부문合作投資위원회 ; Joint Agribusiness Co-investment Council)의 한 간부는 제조업이나 觀光業분야와는 달리 농업부문의 합작투자시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9%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투자자는 JACC의 협력을 받아 현지 공급업체를 물색하거나 또는 合作投資 파트너를 선정하는

農產品의 對美 수출현황

(단위 : US\$ 천)

품목	1983	1984	1985	1986
육류 및 동가공품	9,400	2,206	17,469	25,661
낙농품	6,460	6,584	5,184	4,786
곡물류	1,611	1,796	2,562	2,758
과일 및 채소	30,468	35,813	39,129	42,624
사탕 및 관련품	178,562	217,430	153,137	114,410
염연초	7,738	17,453	9,816	9,787
바나나 및 동가공품	2,013	1,583	1,127	783
코피 및 동가공품	67,485	78,097	75,476	113,021
코코아 및 동가공품	55,843	80,877	68,008	66,298
식물류	—	—	306	216
천연약재	—	—	212	207
계	366,394	458,914	378,062	384,893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외국으로부터의 輸入인콰이어리가 쇠퇴하고 있어 수입상의 신용 상태를 신중히 검토한 후 수출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인다. <KOTRA 海外市場('87. 8. 7)에 발췌>

英國, 곱통조림市場 회복세

市場규모 1,500만弗, 無加糖제품 選好

84년 연간수요 2만 6천t, 수입가격기준 ￦ 1,138만(1,520만弗 상당)을 기록한 이후 85년 파운드換率 약세, 南阿共和國產 곱통조림 수출금지 등으로 인해 약 40% 수준의 시장위축을 겪은 바 있는 英國의 곱통조림 시장이 86년 중반 이후 파운드換率 상향안정세에 힘입어 다시 활발한 회복세를 되찾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수요 18만 t의 英國 과일통조림市場에서 곱통조림의 점유비중 또한 85/86년의 8%수준에서 87년에는 10%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英國의 곱통조림 주종 품종은 Mandarine (歐洲귤)으로, 특히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無加糖처럼 저장된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데,

규격면에서는 14온스 캔제품이 전체 수요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별로 보면 Delmonte, John West (專門輸入流通업체 브랜드), Sainsbury(수퍼마켓체인 브랜드) 등 3대 주요브랜드 제품이 전체시장의 약 40%를 주도하고 있는데, 곱통조림 流通의 약 80%가 수퍼마켓체인등 체인 스토어에 편중되고 있음과 관련, Sainsbury 등 주요 수퍼마켓 그룹 브랜드의 시장점유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국내유통 마진은 약 10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곱통조림의 경우 매스컴 廣告보다는 캔 레이블을 활용한 판촉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主供給國은 南阿共·濠洲·이태리

英國은 국내 곱통조림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공급국은 南阿共和國, 濠洲, 이태리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英國의 경우 곱통조림과 관련한 국별 수입통계가 별도 집계 발표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국별 수입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도별 굴통조림 輸出入실적

(단위 : 萬圓, 千kg)

구 분	연 도	1 9 8 4		1 9 8 5		1 9 8 6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수 입		11,382	27,597	7,857	17,086	8,300	15,523
수 출		177	277	106	138	155	201

[자료 : 영국 통산성 무역통계]

※ 1圓=US\$ 1.3364(84년), 1.2976(85년), 1.4672(86년)

註 : 수출은 재수출실적임.

檳榔지역에서는 中共과 日本이 英國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 공급물량이 각기 30~40 t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英國의 수입업체는 최근 南阿共和國產 굴통조림 공급감소 및 英國내 수요 회복세 등과 관련, 우리나라 등 新規供給先 발굴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조림제품 이외 Segment cell이 분리되어 있는 주스제품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굴통조림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20%에 달하는 한편, 對開途國 GSP 特惠稅率 역시 18%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 등 EC 域內產 제품에 비해 진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일단 가격수준이 진출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평균수입가격은 kg당 90센트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KOTRA 海外市場(87.8.7)에서 발췌>

美, MSG 輸入 增加추세

年間輸入 5천만弗, 을 1/4分期 25%增加

지금까지 주로 東洋人들의 요리에 첨가되어 맛을 돋구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던 MSG (Mono Sodium Glutamic Acid)가 최근 美國內 食品會社에서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西歐人들의 기호식품으로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서 소비량이 점증추세에

있다.

더우기 지난 84년도에 美國內 최대의 생산업체였던 Stauffer Chemical社(年產 5천만 파운드 규모였음)가 他國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한 이래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86년말 5천만弗을 수입, 전년대비 2.9%의 증가율을 기록한 본상품은 84년도 이래 급진장세에서 일단은 주춤한 바 있으나 87년 1/4분기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신장률을 보임으로써 수입물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對美 주요 공급국은 브라질 2,180만弗(16.7%), 日本 140만弗(3.1%) 등의 순인데 브라질에서 공급되고 있는 물량의 대부분이 日本의 현지 합작공장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日本의 供給원어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產, 브랜드 弘報 강화해야

본상품은 파운드당 공급가격이 거의 대등하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오랫동안 입맛에 맞춰 온 嗜好食品이므로 구매하던 상품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어느 상품보다도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마케팅 측면에서 市場쉐어를 확장시키기 어렵다.

경쟁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는 日本, 臺灣을 들 수가 있는데, 日本의 경우 본제품에 관한 한 최초의 先發國으로서

美國의 MSG 國別 수입실적

(단위 : 파운드, : US\$ 천)

연도	1984		1985		198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브라질	29,370,553	14,655	39,264,856	20,493	39,678,398	21,862
대만	11,558,159	6,557	18,931,785	10,943	22,136,134	12,801
한국	11,628,867	6,570	13,546,332	7,712	14,057,411	7,762
프랑스	1,924,860	1,101	3,131,719	1,872	2,810,259	1,543
일본	8,088,421	4,686	5,269,353	2,849	2,565,189	1,365
기타	2,118,300	1,099	1,321,401	864	2,001,184	1,199
합계	64,689,160	34,668	81,456,446	44,733	83,248,575	46,532

[자료 : 미국 상무성 수입통계]

美國內 시장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처해 온 경쟁국인데, 특히 가격경쟁력 제고, 딜리버리의 단축, 스탁세일 등의 방안으로 브라질내에 현지 합작공장을 설립후 對美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臺灣도 소량주문에 신속히 대처하며 나름대로의 시장주축을 하고 있다.

본상품이 기초식품이란 점을 감안할 때 販賣網을 확보키 위해서는 우리나라産 産品의 브랜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대책 활동의 강화, 自由貿易地帶를 활용한 스탁세일 방안 강구 등 다양한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 관련수입상 명단은 KOTRA 情報서비스部에 보관되어 있사오니 관심업체는 활용 바람. (전화 : 753-4181~9 <교> 258, 송)

<KOTRA 海外市場('87. 7. 16)에서 발췌>

오만, 飲料需要 꾸준히 增加

國內生産 활발, 有望産業으로 등장

오만의 飲料水 시장은 현지 기후조건 관계로 날이 갈수록 그 수요가 늘고 있으며, 국내 産品중도 多樣化해 가고 있어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86년도중 1인당 음료수 소비규모는 1일 1캔

으로 연간 1억 2천만 l의 소프트 드링크가 수요되고 있는데, 이는 콜라, 사이다, 미란타등을 비롯하여 탄산수, 과일주스, 밀크가공 음료수등 일체의 소프트 드링크류를 망라한 것으로 國內生産 기준으로 볼 때 85년도 대비 18%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85년말부터 현지 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 철수된 인구이동상태를 고려해 보면 증가폭은 대단한 것이다.

현재 오만내 음료수 생산업체는 소프트 드링크류 3개업체, 미네랄워터 1개업체, 우유 및 乳製品 가공업체 2개社 등 6개社가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오만의 음료수 생산업체를 보면 각종 음료수의 원액 및 농축액을 아일랜드 및 西獨, 日本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캔, 튜브, 유리병 등도 전량 西獨 및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지에서 가공후 製罐(Bottling)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의 음료수 수요 동향을 살펴 보면 콜라류 등 Carbonated 드링크류가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상태의 과일주스류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가공음료수에 들어있는 糖分을 기피하려는 건강관리의식이 보편화됨

에 따른 자연적 추세이며, 이런 면에서 오렌지 알맹이가 들어 있는 주스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原液·캔·병등 輸入 加工

포장면에서 볼 때 유리병의 경우에는 250~300ml, 캔의 경우 296ml 규격이 일반적이며, 유리병의 경우에는 배달시마다 공병을 회수함으로써 평균 3회 정도의 재사용을 일반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ℓ짜리의 Family pack 보급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약 26% 정도의 生産費가 절감되므로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제시가 가능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量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利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만내 생산시설이 없어 1ℓ규격짜리 제품은 전량 사우디, UAE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음료수 수입실적은 연간 약 2,500만弗 규모로서 84년에는 3,150만弗, 85년 2,865만弗, 86년 2,800만弗로 국내 생산량 증대에 따라 약간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85년 이후 유동인구 변동을 고려해 볼 때 1인당 輸入規模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

국내 생산량이 상당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輸入量이 거의 같은 규모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오만의 음료수 수요 증가현상이 뚜렷하다고 보겠으나 이는 국내 생산 음료수의 품종과 품질이 다양치 못함을 반증하고 있어 향후 상당기간동안 우리나라産 음료수 진출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産 과일주스 進出여지 커

경쟁국의 對오만시장 진출상황을 살펴보면 콜라류의 경우에는 自國內 생산업체간 경쟁심화로 우리나라産 진출가능성은 特殊規格에 한

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오렌지, 토마토, 사과, 파인애플 등 다양한 과일주스류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렌지 알맹이의 경우는 日本産과 少量의 우리나라産이 수입되고 있으며, 사과·토마토·파인애플 주스 등은 싱가포르·日本·臺灣産이 다소 유입되고 있으나 美國·英國·화란·西獨産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항은 人蔘 드링크가 소량 수입된 바 있으며, POP브랜드의 Ali Shaihani Group에서 오렌지 알맹이주스류 생산을 위해 금년 5월중 제주도 감귤농장을 직접 방문, 시범상태의 오렌지 알맹이 원료를 우리나라로부터 直輸入코자 추진중에 있다.

동사는 현재까지 日本으로부터 동 원료를 수입한 바 있으나 품질면에서 우리나라産 감귤이 더 우수할 뿐 아니라 가격상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적극 수입할 예정이다.

음료수 산업분야의 오만정부 지원책을 살펴보면 음료수 제조용 공병, 캔, 음료수 원액 및 半加工상태의 원료 등 국내 제조업체 사용 機資材, 원자재 및 원료 등은 수입관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금융지원으로서는 20년 상환조건의 無利子 대부, 보조금 지급 및 25%의 保護關稅 적용 등의 산업보호정책을 制度化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위생상 모든 식료품에는 포장시 제조년월일과 유효기일을 인쇄토록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유효 만기일이 지난 상품은 자동폐기처분토록 制度化돼 있어 이를 위반시에는 엄격한 司法 적용을 받게 된다.

進出上 문제점 및 대책

對오만 음료수 市場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제조년월일 및 유효만기일 표시: 동 표시는 포장상에 인쇄상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스티커등 일체의 간이식 표기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동 표시가 없는 경우 通關이 안 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原資材 및 原料製品 공급확대 : 기초 원자재보다는 현지에서 제관하는 정도까지의 거의 完製品상태의 포장재 및 원액상태의 원료수입 등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현지 생산업체에 대한 原料供給 진출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自然飲料 開發 및 多樣化 : 현지 수요 추세를 감안한 각종 과일주스를 개발하되 설탕 등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음료 개발이 요망된다.

관련수입상명단은 KOTRA 海外調査部에 보관되어 있사오니 관심업체는 활용바람. (전화 : 753-4181~9 <교> 291, 강)

(KOTRA 海外市場('87. 6. 27)에서 취철)

中共, 日本에 88개品目 市場 開放 요구

中共정부는 農水產品을 중심으로 38개품목의 市場開放을 日本측에 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① 우롱차 등의 관세 철폐·인하(14개 품목), ② 김 등의 수입할당 실시 및 할당량 확대(8개 품목), ③ 肉類, 야채류 등의 輸入解禁 및 규제완화(16개 품목)의 즉각적인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中·日 무역불균형에 대한 中共측의 강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市場開放문제는 6월말 개최된 中·日 정기각료회의의 초점이 되었다. 또한 日本의 대응 여하에 따라 中·日 무역마찰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中共정부가 자국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이처럼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요구를 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對日本 석탄수출 확대와 함께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對日 무역적자 해소의 전기를 모색코자 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중심으로 최근 日本 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우롱차에 대해서는 20% 高關稅에다 5%의 물품세가 부과되고 있어 홍차의 8~10배에 해당하는 高稅率이 적용되고 있는데, 적어도 홍차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市場開放 요구의 이유로서 中共産 고 급육단, 봉밀, 밤 등에 대해서는 日本의 相關 생산업자에 피해를 전혀 입히지 않고 있으며, 자스민차, 긴난, 사즈마이모치프 등은 기타 相關산품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수입할당에서는 김, 가죽鞣를 새로 할당대상에 추가하고 쇠고기통조림, 땅콩 등 나머지 6개품목의 할당폭을 증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日本의 通關통계에 의하면 中共의 이번 시장개방 요구품목의 85년도 수입실적은 관세 인하요구 14개품목이 약 1억 2천만弗, 수입할당폭 확대 8개품목 약 3,800만弗, 輸入解禁요구 16개품목이 약 680만弗로 합계가 1억6,500만弗에 달한다.

日本정부는 현 단계에서 中共產品에 한해서 관세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농수산성, 대장성), 시장개방을 위한 행동계획(액션프로그램)의 Follow-up과 相關 歐美 및 ASEAN產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개방책을 강구할 때 中共產品도 배려한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이 中共의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對日 시장개방 요구인 만큼 동건의 진척상황은 日本과 무역불균형 시정에 진력하고 있는 각국의 이목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향후 對日 통상 교섭시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래 日本을 통한 對中共 교역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6년도 스리랑카의 생선통조림 輸入실적

(단위 : kg, R)

中共의 38개 品目 市場開放 요구 내역

○ 관세철폐·인하요구 품목(14개 품목)

고급수제용단(9.6), 자스민차(20), 우롱차(20), 푸알차(20), 꿀(30), 쌀(16), 형겍고무구두(10), 은행(20), 꽃감(15), 것갈류가공품(25), 돈육통조림(25), 가죽구두(21~60)등

○ 수입할당의 실시·할당량 확대품목(8개 품목)

김(1 매당1.5엔), 우육통조림(25), 곤약(40), 곤약가루(40), 땅콩(10), 잣두(10), 파인애플통조림(30), 가죽구두(21~60)

○ 수입금지·규제완화품목(16개 품목)

벗집·동계품(9.6), 소의 생선육(25), 양의 생선육(0), 돼지생선육(5), 토마토(5), 비망(5), 호박(5), 오이(5), 그린피스(건조품)(10), 천진배(8), 여지(10), 한약재(3~6.6), 호두(16) 등 註:() 안은 현행관세율(%) <KOTRA 海外市場('87.7.11)에서 발췌>

국	별	물	량	금	액
칠	레		85,791		2,246,217
중	공		—		4,263
대	만		—		1,872
홍	콩		24		49,149
일	본		4,534,772		123,946,258
한	국		565,099		11,251,136
화	란		152		64,669
포	르	투	갈	16	8,848
싱	가	포	르	296	383,367
태	국		3,167,781		71,040,213
영	국		176		41,534
미	국		159		7,734
기	타		943		779
총	계		8,355,209		209,046,039

[자료 : 스리랑카 통계국 통계]

※ US\$1=R28.93, 87년 4월 22일 현재

스리랑카의 생선통조림 市場 動向

스리랑카는 섬나라이긴 하지만 생선 需要를 국내에서 어획하는 것 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어 일부를 통조림상태로 수입하고 있다.

수입하는 생선통조림은 주로 청어, 고등어, 정어리통조림 등이 있다.

스리랑카는 東北部지방의 種族문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漁撈활동이 순조롭지 못해 신선 및 건조생선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스리랑카의 관세분류상 생선통조림은 16.04로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는 CIF價格에 10%가 부과되고 또한 B.T.T.(사업거래세 : Business Turnover Tax)로서 10%가 추가되고 있다.

스리랑카의 생선통조림시장은 수입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6년도에 日本이 54.2%, 泰國이 37.9%, 韓國이 6.7% 그리고 칠레가

1.03%를 차지하고 있다.

85년도에 日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가격이 워낙 高價여서 86년 들어 그 점유율이 54.2%로 감소되었다.

스리랑카의 생선통조림市場은 가격시장이므로 우선적으로 泰國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무적인 사항은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85년 0.24%에서 86년에는 6.7%로 증가한 것인데, 관련업계는 生産코스트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적인 가격제시를 해야 하며, 아울러 小型캔의 수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KOTRA 海外市場('87.7.6)에서 발췌>

英國, 對韓 복숭아통조림 輸入關心 높아

年間需要규모 3,400만弗 수준

英國의 과일통조림 연간 수요규모는 약 18

만 t, 소매가격기준 약 1억7,500만(약 2억 5,600만弗 상당)으로, 주요 품종별 시장점유비를 보면 복숭아 28%, 배 14%, 파인애플 12%, 과일카테일 10%, 오렌지 8% 등으로 복숭아가 과일통조림중 가장 큰 需要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英國은 관련 국내산업 취약으로 인해 복숭아통조림 國內需要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86년도 수요규모는 약 5t만, 수입가격기준 2,300만(약 3,400만弗)으로 매년 2천~2,500t의 꾸준한 수요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브랜드별로 보면 Princes, Del Monte, Sainsbury, John West, Tesco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복숭아통조림은 파인애플이나 과일카테일類와는 달리 Sainsbury, John West 등 슈퍼마켓 체인 또는 專門 輸入 流通업체 자체브랜드의 역할이 비교적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통면에서 보면 이들 주요브랜드 제품들은 자체 슈퍼체인 또는 전국규모의 小賣供給라인을 구축,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都小賣시장 기능이 취약한 편으로 자체브랜드 제품의 유통마진은 약 9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無·低加糖제품 選好 지속예상

최근 英國 복숭아통조림 시장수요의 현저한 특징으로는 건강식품 붐을 배경으로 한 無加糖 제품의 선호성향을 들 수 있는데, 15% 이상 加糖제품의 수입이 84년 3만 t에서 86년 2만 5천 t으로 감소하는 한편, 15%이하 低加糖 및 無加糖제품 수입이 동기간중 1만 6천 t에서 2만 4천 t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가당제품 선호성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英國의 경우 복숭아통조림과 관련한 국별 수출입통계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입실적은 추적하기 어려우나 주요공급국으로는 濠洲, 南阿共和國, 이태리, 그리스 등을 들 수 있으며, 極東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공급국으로 86년 加糖제품 2,466 kg 2,530을 수출, 시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지업체에 따르면 최근 低加糖제품을 중심으로 英國내 수요가 활발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政情불안으로 인한 對南

주요과일통조림 품종별 시장점유비(물량기준)

품종별	시장점유비(%)
복숭아	28
배	14
파인애플	12
과일카테일	10
오렌지	8
기타	28

[자료 : John West Foods]

英國의 복숭아통조림 輸入실적

(단위 : 1천, 천kg)

연도별	구분	15%이상 가당		15%이하 가당		합계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1984		15,429	30,123	7,539	15,813	22,968	45,936
1985		15,332	28,940	8,368	17,189	23,700	46,129
1986		12,052	25,947	10,997	24,383	23,049	50,330

[자료 : 통산성 무역통계]

※ 1=US1.3364(84년), 1.2976(85년), 1.4672(86년)

阿共和國 수입둔화로 우리나라 등 신규공급선 발굴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분야 우리업체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북송아통조림 역시 타과일통조림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선호성향이 높은 한편 TV 등 매스컴광고 및 캔 표면 레이블을 활용한 대규모 販促活動 등이 중시되고 있어 신규공급업체 자체브랜드로는 시장기반 구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현지 전문수입유통업체를 통한 無브랜드 우회진출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지업체에서 선호하는 수입가격 수준은 14온스 캔 無加糖제품기준 kg당 0.60弗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 관련수입상명단은 KOTRA 情報서비스부에 보관되어 있사오니 관심업체는 활용바람. (전화 : 753-4181~9 <교> 258, 元)
<KOTRA 海外市場('87. 7. 25)에서 발췌>

게맛살, 對프랑스 輸出動向

輸入節次

86년 8월 24일자 프랑스 官報에 발표되어 87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水産物 輸入규정법령(86년 7월 25일자)에 의하면 게맛살 및 수산물은 가공(살을 갈라서 제조한 다음 익힌 것으로서 消費者가 요리할 하지 않고 즉시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水産物)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동 제품의 수입조건은 타수산물보다 더욱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즉 게맛살 製造業體는 프랑스의 수산물가공처리 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국의 水産物 衛生檢査員이 생산시설, 장비, 종업원 및 제품에 대해 위생검열시 게맛살내에 병원체나 화학 및 생물학적 전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조사를 위해 게맛살의 見本을 채취하는데

응해야 된다.

프랑스에 있는 輸出國 公館은 동제조업체의 上記조건 충족에 관한 확인서와 함께 프랑스 農業省 食品위생과에 동 제조업체의 對프랑스 수출자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시승인번호가 교부되나 공식승인여부는 프랑스 農業省 食品위생검사원의 현장검사후에 통보되며, 공인받은 外國의 수산물 제조업체명단은 프랑스 官報(수입업자 공고란)에 공식 발표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게맛살은 프랑스 農業省이 인가해준 수출국 제조업체의 인가번호가 衛生證明書 및 포장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수입이 가능한데, 동 수입절차는 수출국업체가 國文 및 佛文으로 작성, 수출국의 공인수의관 또는 수산물검사관이 서명 날인한 위생증명서를 프랑스 수입업자에게 송부, 수입업자는 동 위생증명서를 통관서류와 함께 프랑스 稅關에 제출해야 되고 프랑스 위생검사관은 동 증명서를 기초로 輸入商品의 위생상태를 검사한 뒤 합격여부를 수입업자에게 통보해 주는데, 이 때에 불합격품은 압류 폐기처분된다.

게맛살 輸入規制 움직임

프랑스 農業省은 삶아서 가공한 魚類에 대한 제조·보존과 관련된 위생규정(1974년 6월 26일자 法令)을 금년 8월 중순부터 정식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의 배경은 최근 프랑스내에서 日本 産 輸入 冷凍게맛살의 인기가 높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일부 프랑스 업체가 동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된다.

이 衛生규정에 따르면 게맛살의 對프랑스 수출을 위해서는 '위생검사 확인마크'를 획득토록 하고 있는데, 이 마크는 해당 수출국의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동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프랑스정부가 지정한 設問書를 작성, 프랑스 정

부에 신청하면 이를 검토 발급토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마크의 발급을 위해서는 프랑스 農業省 관계자가 해당 輸出業體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시설이 동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이를 발급하며, 발급 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農業省 관계관에 따르면 현재 日本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게맛살에 사용되는 防腐劑, 色素 및 특정 첨가제(Sorbitol)가 현 프랑스 위생규정상 허용기준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년말부터 현기준을 완화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현재 日本업체는 이미 프랑스 農業省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해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처녀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로 프랑스의 위생검사 확인마크 획득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계의 상호협조가 요망되고 있다.

〈주요輸入商 명단〉

- Ifafood
38, Avenue de l'Opera, 75002 Paris
Tel: 42 66 12 02
Tlx: 210598 F
Mr. Patrick Lagoin
- Praga
12, Rue de la Victoire, 75009 Paris
Tel: 42 81 91 41
Tlx: 642355 F
- Paquet(Ste Commerciale)
69, Boulevard Capitaine Gege BP255
13308 Marseille Cedex 14
Tel: 91 02 70 31
Tlx: 401602 F
- Chegaray et Cie.
30, Rue Fontenelle BP97
76050 Le Havre Cedex 1

- Tel: 35 42 64 91
Tlx: 190690 F
Mr. Chegaray
- Martin Import-Export
62, Route de Mons
Mairieux 59600 Maubeuge
Tel: 27 64 88 40
Tlx: 820107 F
- Codief
24, Rue Charles Tellier
13333 Marseille Cedex 14
Tel: 91 98 90 58
Tlx: 410959 F
- Allum SA(JM)
166, Rue Vanheeckhoet BP387
62205 Boulogne Cedex 1
Tel: 21 33 92 22
Tlx: 110053 F
Mr. Badre
- SORIC(Société d'Importation, Representation, Commission, Courtages Internationaux)
18, Boulevard de Vintimille
13015 Marseille
Tel: 91 95 91 08
Tlx: 440446 F
Madame Achard
- Caviar Petrossian
Boulevard de Latour Maubourg
75007 Paris
Tel: 45 51 59 73
Tlx: 200439 F
- Langouste
29211 Roscoff
Tel: 98 69 76 00
Tlx: 940204 F
〈KOTRA 海外市場(87.7.27)에서 발췌〉